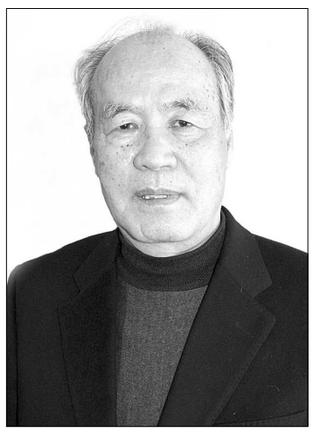
2008 새해설계 ②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이병업

'바르게 살자' 조형물 설치 관계당국 협조해야

교통 · 거리 질서 지킬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과제



"바르게 살기운동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며 즉 면면히 내려오는 우리민족의 훌륭한 민족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켜 21세기에 맞는 사회규범체제 및 새로운 문화의 재창조, 건전한 국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기르자는 운동입니다."

2001년 2월19일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으로 취임해 다양한 활동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해 온 이병업(68 · 사진) 회장이 설명하는 바르게살기 운동의 목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는 지난해 불우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력봉사활동을 펼쳤는데 14개읍면동 자원봉사대원 167명이 노아의 집 등 9개소 불우시설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인원 978명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같은 봉사활동은 포천사회의 귀감이 되었으며 지난해 12월6일 제8회 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포천동 박형민 회원이 유공회원으로 포천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활성화 유공회원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조도행 부회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소흘읍 한영분 총무, 바르게훈장 김칠형 감사, 지정옥 여성회장 중앙회장 표창 관인 이원식 위원장, 효부표창(경기도지사) 신북면 이영순, 경기도협의회장 표창 관인면 김오섭 총무 등이다.

평소 불우한 이웃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봉사 활동으로 지난 1년동안 100시간 이상 300시간까지 봉사활동에 나선 윤미숙 등 16명이 자원봉사대회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또한 나라사랑 가정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운동으로 국경일 태극기 달기와 그려보기 운동을 지난해 12월6일 자원봉사대회 축제장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복 6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해 8월13일 신읍동 일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태극기의 존엄성과 애국심 함양과 시민의식 개혁 전환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문화재 보호운동 추석 설날 등 독거노인을 위문 방문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으며 국민관광지 산정호수 백운계곡 읍면동 시골민속장터 등에서 시민과 학생 행락객을 대상으로 친절 질서 청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현재 포천시 14개 읍면동에서 60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는 올해 특색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도로변과 관광명소 및 공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바르게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의와 질서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바르게 살자'라는 조형물 건립에 포천시는 물론 뜻있는 분들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말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병업 회장은 "그동안 많은 운동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잘 안지키고 있다"며 "교통질서와 거리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여성회원들의 목욕봉사에 관한 기사가 나가자 많은 여성회원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며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가 봉사활동에 나선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중 태안 기름유출사고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불우시설노력봉사, 바르게살자 조형물 설치,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효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히는 바르게 살기운동 각 임원 및 읍면동 지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협의회장 이병업 ▶여성회장 지정옥 ▶사무국장 박영태 ▶소흘읍위원장 우용철 ▶군내면위원장 김선우 ▶내촌면위원장 김창성 ▶가산면위원장 이덕순 ▶신북면위원장 박창수 ▶창수면위원장 김용식 ▶영중면위원장 안선재 ▶일동면위원장 라득헌 ▶이동면위원장 박수문 ▶영북면위원장 김진석 ▶관인면위원장 이원식 ▶화현면위원장 최석현 ▶포천동위원장 이한인 ▶선단동위원장 이금묵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설 연휴 특별경계 근무 돌입

포천소방서 설맞이 시민안전 대책 추진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민족대이동이 예상되는 무자년 설날을 맞이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설연휴 대비 특별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전직원의 비상동원령 발령 ▶소방관서장의 관내 정위치 근무 ▶상황책임관 과장급으로 상향조정 ▶폭설 기온 급강하 발생시 교통두절안전대책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시장 백화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 순찰활동강화 ▶휴무 공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귀성객 운집지역 119구급대 전진배치 ▶연휴 휴무 응급의료기관 파악 응급환자 대처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연휴 중 운악산등을 타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119산악구조대원 증원 ▶산악안내표시판 정비 ▶소방헬기 출동태세등을 점검 대형인명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설을 맞이해 ▶대형슈퍼등에서 비상구 등을 막아놓거나 출입문에 상품 등을 적재해 피난에 장애가 되는 업소를 119로 신고 하면 119기동팀이 현장안전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갈등(葛藤)

김 창 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가치관의 혼란한 시대도 없을 것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는 시대 한복판에서 진정한 가치관을 찾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매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신뢰와 냉철과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든다.

옛날 중국 기(杞)나라에 걱정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신경쇠약으로 죽어버렸다 여기에서 기우(杞憂)란 말이 생겼다.

걱정하지면 한이 없다. 지진을 걱정해서 이사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큰 걱정들을 한다. 생태계의 변화를 염려한다. 출발도 안하고 걱정부터 하는 이도 있다.

'맡긴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맡겨 본 사람이 신뢰도 받게 된다. 돈은 은행에 맡기고 고장난 차는 정비공장에 맡긴다. 병들면 몸을 의사에게 맡기고 결혼함으로써 남녀가 서로를 맡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걱정과 슬픔과 불안은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 할 것을 가르키신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한다. 기우가 기우로 끝나면 좋겠다. 우리 기독 신앙인에게 있어 장점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짐을 맡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고.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㉗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 유형 제안

서 희 석
대성지적GIS기술단 대표이사

남한은 수정자본주의적 토지사상에 입각하여 자유 소유권을 인정하며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 남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인 자유에 기초하여 자유 소유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량주의적 토지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전 인민을 대표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체제의 남북 토지제도가 통일 한국이라는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토지 사상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남북통일의 주체인 남북 주민 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는 사유재산의 보장을 중심으로 다만 사유 재산제 인정에 따른 폐단의 보완 등의 추가적 조치가 요구되며, 추가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특히 현 남북 토지제도가 공적 규제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는 통일 한국 토지제도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토지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 사유화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공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의 사소유 제도 보장

토지 사유화의 원칙토지 사유화라 함은 전 국토를 개인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토지 소유 형태의 일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와 개인, 기업, 단체 등의 사유지가 공존적 체제로 인정되어 개인에게 토지 소유의 권리가 인정됨을 말한다.

그러나 토지 사유화의 가장 큰 핵심인 소유권의 개념과 범위는 다소 개량적으로 변질된 것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을 주권능으로 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개념을 토지 소유권 행사의 공공성 적합 논리에 의하여 그 권리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처분권의 제한을 통하여 토지에 한하여 강화된 이용권에 의한 사적 소유의 실현을 두는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토지 사유화에 따라 소유 재산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토지공개념 제의 도입과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책이 필요하다.

새인물 이문환 평화사랑여성회장

"새터민 멘토 프로그램 적극 추진할 터"

남북 여성간 문화적체험과 정보제공 역할

"그동안 주춤했던 평화사랑여성회의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통일시대를 대비한 알림이 역할은 물론 북한과, 탈북주민, 조선족들에게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정책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환(44 · 사진) 대표가 2008년 1월부터 3년동안 평화사랑여성회를 맡으면서 밝힌 취임소감이다.

2004년도에 창립한 평화사랑여성회는 통일시대를 위한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며 남북 여성간 문화적 체험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통일이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문화의 폭을 좁히고 통일시대를 여는 국내 알리미 역할 및 통합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중이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통일시대를 위한 여성 여가활동가 네트웍 ▶건강여가 프로그램 ▶새터민과의 멘토 프로그램 ▶한 · 중 여성지도자 워크샵 ▶지역문화 축제 ▶통일기원 문화예술제등이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새터민 멘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열등감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새터민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동당사, 판문점, 철원 땅굴 등을 견학하여 현실감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사랑여성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문환 ▶사무국장 이혜영 ▶총무위원장 류정순 장계자 ▶문화행사위원장 김용진 ▶홍보위원장 조정숙 ▶기획 이무영, 한봉순, 이명녀, 정민영, 박성애, 백승민, 조순옥, 박순덕, 문정애, 송향숙, 강선애, 김경자 ▶행사진행 김갑윤, 고범옥, 정인규, 허희연, 주용숙, 이현숙, 김미자 ▶각종홍보 최원자, 김영숙, 이경숙, 김경숙, 강명순, 박춘단, 송민호, 이금선, 진복순, 김영옥, 주은경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GOEUN 고객이 만족할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최 두 열
대표이사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주인정신 · 성실시공 · 실력배양

취급공사

- 한전
- 공장
- 학교·관공서
- APT
- 병원
- 가로등·신호등
- 빌딩
- 호텔
- 인테리어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상가 및 기타

고은종합전기(주)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